[보도자료]

2026-11-05

라이프자산운용 "삼성전자 주주환원 유보, 전체 주주에 유리한지 독립 검토해야"

주가 부진 국면에도 내년 1월 말로 주주환원 결정 유보…이사회 특별위·삼성 준감위에 독립 점검 요청

라이프자산운용이 삼성전자 이사회 특별위원회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잔여 주주환원 재원의 활용을 내년 1월 말로 유보한 결정에 대한 독립 검토를 요청했다. 주가가 부진한 국면에서 결정을 유보한 판단이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판단 과정에서 잠재적 이해상충이 적절히 관리됐는지 회사가 스스로 마련한 독립적인 장치로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라이프자산운용은 전날 삼성전자 이사회 특별위원회에는 잔여 주주환원 결정 유보의 경제적 합리성과 절차적 적정성을 검토해줄 것을,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는 최고경영진의 개인적 이해관계로 인한 이해상충 여부를 준법의무의 관점에서 점검해줄 것을 각각 요청하는 주주서한을 보냈다고 5일 밝혔다. 라이프자산운용은 연내 집행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두 위원회가 신속히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전달해 향후 주주환원 의사결정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9월 라이프자산운용은 삼성전자 이사회에 잔여 주주환원 재원의 배분을 내년 1월보다 앞당겨 결의해 올해 안에 자기주식 매입·소각을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삼성전자 이사회는 2분기 실적을 발표한 8월 21일에 이어 3분기 실적을 발표한 10월 29일에도 구체적인 주주환원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55조~75조 원에 이르는 재원의 쓰임새에 대한 결정을 석 달이나 유보한 것이다.

삼성전자 이사회의 결정에 시장은 실망으로 답했다. 8월 발표 후 첫 정규거래일에 삼성전자 주가는 8.70% 하락했고, 10월 발표 때는 이틀간 4.13%, 3.02% 떨어졌다. 국내외 언론과 증권사도 주주환원의 지연을 주가 부진의 원인으로 짚었다. 블룸버그는 새로운 주주환원 계획이 제시되지 않은 데 따른 투자자들의 실망을 꼽았고[1], 한 국내 증권사는 주주환원 정책이 시장 기대치에 미

[1] Bloomberg, "Samsung Shares Slump as Investors Fret Over Delay in Return Plan," 2026. 10. 29.(한국시간).

치지 못해 경쟁사보다 투자 선호도가 낮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2].

라이프자산운용은 주주환원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실행하느냐에 따라 같은 재원으로 달성할 수 있는 주주가치 제고 효과가 달라진다고 보고 있다. SK하이닉스는 8월과 10월 합산 50조 원에 이르는 소각 목적의 자기주식 매입을 즉시 결의했고, 두 차례 모두 발표 직후 주가가 10% 넘게 상승했다. 반면 삼성전자 주가는 2026년 예상 실적 기준 주가수익비율(PER) 5배 수준에 머물러 있고, 우선주의 보통주 대비 할인율은 20%를 웃돌고 있다.

결정 유보 과정에서 잠재적 이해상충이 적절히 관리됐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재용 회장은 오는 12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으로부터 삼성전자 보통주 1,115만8,000주를 증여받을 예정이다. 증여세는 증여일 전후 각 2개월인 9월 12일부터 내년 1월 12일까지의 평균 주가로 산정되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평균 주가가 1만 원 오르내릴 때마다 세액이 약 650억 원씩 달라진다. 잔여 주주환원이 이 평가 기간이 끝난 이후에 결정되면서 일부 언론은 결정 시기와 증여세의 관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라이프자산운용은 잔여 주주환원의 결정 시기와 이 회장의 증여세 평가 기간과의 관련성을 단정할 수는 없고, 최초 주주환원 계획 발표는 8월로 증여 계약 이전이었다는 사정도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10월 결정 당시에는 증여 계약이 이미 공개됐고 평가 기간도 진행 중이었던 만큼, 이사회가 이를 충분히 보고받고 잠재적 이해상충을 식별·관리하면서 독립적으로 판단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라이프자산운용은 삼성전자 이사회 특별위원회에 △8월과 10월 두 차례 이사회 때 조기 집행과 내년 1월 결정 사이의 편익 및 비용을 비교했는지 △라이프자산운용이 9월 제안한 연내 자기주식 매입·소각 및 우선주 우선 배정 방안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10월 이사회 때 증여 사실을 잠재적 이해상충 요소로 검토했는지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판단 근거를 주주들에게 설명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별위원회는 삼성전자가 4월 독립이사 5명 전원으로 구성한 기구로, 총주주의 이익 보호와 전체 주주 이익의 공평한 대우를 충실히 고려해야 하는 사안에 대해 의사결정의 정당성, 조건의 공정성, 절차의 적정성을 검토한다.

동시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는 △주주환원의 시점과 실행 방식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최고경영

---

[2] IBK투자증권, 「삼성전자(005930): 실적은 좋지만, 주주환원은 아쉽다」, 2026. 10. 30.

진 관련 잠재적 이해상충 요소가 식별됐는지 △식별됐다면 준법의무에 부합하게 관리됐는지 확인해줄 것을 요청했다. 준법감시위원회는 삼성 계열사 최고경영진의 준법의무 위반을 독립적으로 감시·통제하는 기구다.

강대권 라이프자산운용 공동대표는 "주주환원은 규모뿐 아니라 시기와 방식에 따라 주주가 얻는 효과가 달라진다"며 "최종 금액이 확정되기 전에도 조기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고, 내년 1월까지 결정을 유보하는 판단의 근거를 전체 주주의 이익 관점에서 설명해달라는 요청"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위원회의 독립적인 검토가 삼성전자의 의사결정에 대한 주주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

자료문의: 박주홍 인게이지먼트팀장 변호사(jhpark@investlife.com)

이민호 인게이지먼트팀 과장(minori@investlife.com)

배포시점: 즉시